

여름해변의 문학과 지성

고성문학회, 김하인 아트홀서 두번째 계절 모임

고성문학회(회장 이선국)는 지난달 23일 자작도 해변 인근에 위치한 김하인 아트홀에서 '여름 해변의 문학과 지성'이란 주제로 두 번째 계절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황연옥의 '신상리 사람들 8', 이선국의 '유월의 화진포', 김향숙의 '겨울 소나무', 홍의현의 '낙화' 등 자작시 낭송과 시합평이 진행됐다.

또 최근 작품 탈고를 끝낸 소설가 김하인 회원과 제3회 관동별곡 8백리 문화축전에서 장원을 차지한 남숙희 회원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 후에는 김하인 아트홀에서 준비한 술과 음식을 함께 들며 고성지역 문학과 문화예술 발전



지난달 23일 김하인 아트홀에서 열린 고성문학회 계절 모임.

을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10월 계절 모임은 남숙희 회원의 화포리 관션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수성문화제 행사 때 시화전 또는 걸개시화전을 개최하는 방

최광호 기자

가라홀시단(加羅忽詩壇)

피서

김향숙

큰 산맥 아래서는 해가 일찍 저문다
붉은 노을 끝으로
산 중턱에서 별이 툭툭 불거지는
진부령 소풍령 마을

평상에 나와 앉아
산나물, 주어탕으로 저녁을 먹고
가마솥에 끓인 구수한 누룽지 송농 맛에
모두들 이야기가 깊어졌다

큰 아이는 아버지 따라 밤고기 뜨러 가고
모기도 없는 마당가에서는
익모초 타는 연기와
풋옥수수 굽는 냄새가 났다

봉숭아 꽃물 들인 손톱을 세우고 누워
작은아이와 나는 오래도록 별 이야기를 하고
별 이야기 들어있는 노래를 불렀다

초저녁 계곡물에 씻은 발이 아직 시리고
풀벌레가 우는지 별이 우는지
어릴 적 외할머니 댁에서처럼 정답기도 낯설기도 하여
마지막 밤까지
나는 가지고 온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했다.



-경북 함양출생
-고성고 졸업
-춘천간호전문대 중퇴
-(시현실) 등단
-현재 고성문학회 사무국장

고성교육지원청 초등학생 여름과학캠프 개최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초계학생수련장 및 어천리 일대에서 지역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과학교실 여름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여름캠프는 과학교육교과연구회 지도교사 20명과 함께 수중생물 탐사 및 로봇, 발명분야 활동을 비롯해 비틀진동차 만들기, 분수불꽃 만들기 등 다양한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박승근 기자



아모레 카운셀러 모집

여성이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모레 카운셀러는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엄마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원 박옥순

- 소득** 월평균 100만원 이상 소득 가능
지부장으로 승진시 400만원 이상 고소득 가능
- 판매** 고기능성 상품 취급, 판매기법 과학화, 다양한 판촉지원
- 교육** 고객에게 신뢰받는 미용전문가로 육성
- 승급** 능력에 따라 언제든지 팀장, 부장, 지부장, 수석지부장으로 승급
- 복지**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등 지원

017-767-1226
아모레 설악점

